

# “미국방부, 이란내 지상작전 준비...트럼프 결단안해”

美언론, 당국자 인용...“모의훈련 통해 검토, 즉흥적 계획 아냐”  
“특수부대·보병 기습 가능성...단행시 중동전쟁 위험한 새 국면”

미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천명가량의 지상전 병력을 이란 앞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훈련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은 “이번 대이란 지상작전이 이뤄져도 전면 침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면서 “그 대신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혼합된 형태의 기습작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또한 “지난 한달간 행정부 안에서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 기습을 통해 상선이나 군함을 노릴 수 있는 이란의 무기를 탐지·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지상작전 계획을 ‘워 게임’(모의훈련)을 통해 폭넓은 차원에서 검토해왔다면서 “이는 즉흥적 계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지상작전을 벌여 하르그섬이나 일부 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 측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군 관계자도 “이란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이란 정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카드가 되겠지만, 그곳을 점령한 미군 병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점령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간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래 미군 13명이 전사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작전 지속 기간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목표 달성까지 “수개월이 아닌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수개월 일 수 있다”고 WP에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P의 질문에 “국방부의 임무는 군통수권자(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이란과 협상을 통한 종전에 우선 관심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지상전확전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란과 우선 협상을 통한 조기 종전을 추진하되 여의찮을 경우 지상 병력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메시지 관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폭격 현장 조사중인 구조대원 2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구조대원들이 폭격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7일 “몇달이 아닌 몇 주 내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unleash hell)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위협했다.

미국에서 이란 지상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상전 결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공동 수행한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지상군 투입에 강하게 반대했고, 찬성은 12%에 그쳤다.

최근 미국은 지상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병대 약 5천명과 제2공수사단 2천여명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미군이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들 가운데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 7)에 탑승한 2천여명의 31해병원정대는 이미 27일로 중동 현지 배치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NASA ‘아르테미스 II’ 발사 D-5 “달로 갑시다”

여성·우색인종·캐나다인 우주비행사

“로켓은 준비됐고,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이 우주비행선은 확실히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달로 갑시다”

‘아르테미스 II’에 탑승할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음달 1일 발사를 앞둔 ‘아르테미스 II’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달 궤도로 향하는 유인 우주비행선이다.

이 임무에는 지휘관인 와이즈먼을 비롯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열흘간 달 주위를 도는 궤도 비행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임무가 성공할 경우 크리스티나 코크는 달로 향한 첫 여성 우주비행사, 빅터 글로버는 첫 유색인종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은 NASA 소속이 아니면서 최초로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한 우주비행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CNN방송은 “50여년 만의 처음으로 인류 달 착륙을 위해 우주선에 탑승하는 이들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상징한다”며 “모두 군인 출신의 백인 미국 남성으로만 구성됐던 아폴로 시대의 우주비행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II’ 발사가 다가오면서 우주비행사들도 지난달부터 완벽한 임무를 위해 격리 상태를 유지해왔다.

당초 지난 2월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연료 누출 및 헬륨 흐름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4월 1일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 월드컵 개막 멕시코시티 2달간 살인만 104건

당국, 경계 강화...한인 밀집 지역 ‘주의’

올해 첫 두달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개인을 겨냥한 직접적인 무장 공격이 잇따르며 100명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전 월드컵’을 표방하는 치안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멕시코 국가 치안 시스템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간 멕시코시티 내에서 총 104건의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단별로는 총기 사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물건 13건, 흉기 12건, 미분류 1건 순이었다.

구(區)별로는 이스타팔라파가 17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구스타보 에이 마데로(8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인 상점이 밀집한 소나로사가 포함된 쿠아우테모크와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겔 이달고에서도 각각 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반면 쿠아히말파와 베니토 후아레스에서는 같은 기간 살인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역별 치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치안 당국도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멕시코시티 통합관제센터와 국방부는 시내에 11만대 이상의 카메라를 연동해 치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방위군은 월드컵 중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와 테러에 대비해 최근 인질 구출 훈련을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 내달부터 자전거 범칙금...휴대전화 보면 11만원

내달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행위에는 1만2천엔(약 11만3천원), 신호 위반 6천엔(약 5만6천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에는 5천엔(약 4만7천원) 등 113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연합뉴스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어청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